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23일 (음력 4월 9일) 수요일

## 민주당 광주 청년비례 '불공정 공천' 시끌

### 광주지역 6개 청년단체 “도덕성 문제 심각한 최영환 후보 자격 박탈 강력 촉구”

### “광주정신 맞는 청년 후보 공천하길 바라”... 릴레이 1인 시위 등 행동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자격 시비와 불공정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됐다.

상상실현네트워크와 위민연구원,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등 광주지역 6개 청년단체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년비례대표로 선출된 최영환

(34)씨가 2016년 10월 용역입찰 기술평가위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흥군, 여름 문턱 '소만' 이른 모내기엔 분주... 지난 21일 장흥군 용산면 송전마을에서 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른 모내기가 한창이다. 이날은 24절기 중 열달 번째 절기인 '소만'으로 모내기 준비와 가을보리 먼저 베기 등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영환 후보가 2016년 10월 용역입찰 기술평가위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년 비례대표 공천자격 박탈을 촉구한 지 1주일 만에 내놓은 이날 자료에서 청년단체들은 “감사결과에 근거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최씨는 이후 계약변료에 따라 퇴직했으나 이같은 징계 사유로 인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씨가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평소 친분이 있는 모 기업체 이시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부정정착을 받은 심사위원 3명이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예정됐던 회의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들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광주시당이 최씨의 해명만 듣고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어서 직접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됐고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최씨의 공천자격 박탈을 강력히 촉구하며, 광주정신에 맞는 청년 후보를 공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거짓 해명에 대한 확실한 반박 감사자료가 나왔음에도 즉각적인 공천 박탈을 하지 않는다면 릴레이 1인 시위와 중앙당 항의 방문 등 특단의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민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4만6000건의 ARS와 전화 면접을 통해 각 구별 60명씩, 연령대와 성별을 구분해 모두 30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민생외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원내대표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5월 입법성사를 위해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민생입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국회 종료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9604건”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는 여러 난제를 이기고 얻은 인고의 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만큼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경도어야 함의대로 18일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고용유기, 산업 지역 고용유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내일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뉴시스

김정환 기자

## 전남도, 정부 일자리 추경서 지역현안 사업비 921억 확보

### 주요 예산, 대형요트 개발·지역 투자촉진·항만시설 유지 보수 사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에 전남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

전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21일 현재 주요 현안 예산 24건, 921억 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남도는 지난 4월 초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35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추경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0억 원, 희망근로 지원 19억 원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사업 1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목포시와 영암군이 5월 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예산 확보액은 100t급 대형요트 개

발 49억 원, 지역 투자촉진 37억 원, 항만 시설 유지 보수 사업 36억 원,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억 원, 조선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운영 16억 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 14억 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특히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확대, 근로자 생활안

정자금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이번 추경에서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1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 원, 항구적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영산강 Ⅲ지구) 80억 원, 신안 입해~안태 새천년대교 건설 60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숨통이 트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난 10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가 이번 국회 상임위 기간 중 국회를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해결위원 및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

## 6.13. 아름다운 선거

### 행복한 우리 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